



2010 SonKeeChung Peace Marathon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

• 일 시 : 2010년 11월 21일 (일) 09:00 • 장 소 :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종 목 : 풀코스, 32km코스, 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



- | | | | |
|-----|---|----------|-------------------------|
| 주 최 | 손기정기념재단 YTN
www.marathon1936.com | 주 제 | Great Step, 손기정과 함께 달린다 |
| 주 관 | YTN 손기정평화마라톤 준비위원회 | 주 관 대 행사 | SPORTAIN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 특별 후원 | 朝鮮日報 |
| 협 찬 | KT KB FILA 하이원리조트 kdb 산업은행 하나금융그룹 대한주택보증 IBK 기업은행 | | |
| | LG U+ 르노삼성자동차 KSD 한국예탁결제원 Smart Money Bank 저축은행 SP EAGLE EYED HAPPY AUTO 우정사업본부 | | |
| 협 력 | 강원심중수 Tous Les Jours SM Tong DREAM COFFEE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 | | |

YTN

2010년 11월 <제 89 호>

• 발행인 : 배석규 • 편집 : 홍보팀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 Tel : 02-398-8000 • 제보 : 02-398-8282 / 02-398-8585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Power Media Big 5



Power Media Big 5

'5대 뉴스 매체'로 자리잡은 YTN 영향력·신뢰도 케이블 2년 연속 1위! 글로벌 뉴스 채널로 자리잡다!

한국의 뉴스채널 YTN이, 신문과 방송을 통틀어 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5대 매체'로 꼽혔다. 매체 영향력과 신뢰도는 지상파 방송과 겨루며 2년 연속 케이블업계 1위를 차지했다.

모든 채널 가운데 하루 5분 이상 보는 것은 지상파 3사에 이어 YTN이 4위를 차지했다. 시청시간 비교에서 뉴스만 하는 YTN은 연예·오락 프로그램도 내보내는 지상파 방송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뉴스전문채널의 위력을 보여줬다.

매체 영향력은 KBS, MBC, SBS에 이어 조선일보, YTN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신뢰도 평가에서도 YTN은 지상파 방송과 겨루며 전체 5위를 기록했다.

YTN, 이제는 글로벌 뉴스 채널로 자리 잡았다.

YTN이 전세계로 전파를 발사한지 내년이면 8년이다. 남극의 세종기지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열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어디에서나 YTN의 뉴스를 한국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재외동포 1천만시대, 특히 2012년 재외동포 참정권 시대를 맞아 YTN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뉴스 채널 YTN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02 커버스토리

YTN, 글로벌 뉴스 채널로 자리잡다!

- 1 '광고주협회 2010 미디어리서치 결과' 의미 _ 최영재
- 2 미국 출장 _ YTN 위상 재확인 _ 나은수

10 핫이슈

- 1 기상캐스터가 만드는 날씨 홈페이지 _ 김지현
- 2 기상전문가가 본 YTN웨더 _ 김승배
신입 기상캐스터 인사드려요!!! _ 이슬기
기상캐스터의 '맛 나의 실수' _ 정혜윤
- 3 박종권사우 순직 _ 이문석

16 단독보도

이달의 기자상 _ 해군 고속함 '갈지자 주행' _ 함형건

18 해외취재기

- 1 독일통일 20년 _ 홍상희
- 2 백두산 _ 동북공정으로 훼손된 역사의 현장 _ 두수진

22 프로그램제작기

"영상보고 화산섬 제주" 제작기 _ 김신영

24 콘텐츠 확대

- 1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조화 _ 박용호
- 2 DMB데이터방송을 통한 DGPS 상용화 추진 _ 최형철
- 3 제1회 중학생 영어토론회 1위 _ 진수완

30 세계속 YTN

스위스 주봉희 리포터 _ 주봉희

32 기획취재 _ YTN 사람

유럽특파원 부임기 _ 류충섭

34 ZOOM

제 6기 시청자 위원회 구성



<표지사진>
Power Media Big 5



YTN은 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뉴스매체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신문의 몰락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일 것이다. 유력한 신문의 미디어 담당 기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한국광고주협회의 조사 결과가 방금전에 나왔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뉴스매체를 묻는 질문에 불과 한자릿수, 그것도 반올림이 안되는 한자릿수만이 본인이 일하는 신문을 꼽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른 신문들은 더 처진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문들은 방송은 물론, 포털에 이어서 YTN에까지도 사람들이 뉴스정보를 알기 위해 먼저 찾는 우선순위 매체에서 밀리고 있음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나는 전화를 건 기자에게 위로 섞인 다른 해석을 해주었다. “*기자, 요즘 **일보 독자들이 아침에 신문을 펼칠 때, 오늘은 새로운 뉴스가 무엇이 있을까하고 기대하겠습니까? 독자들은 이미 새로운 뉴스 정보는 방송과 인터넷에서 얻는 상태에서 신문에서는 오늘의 주요 이슈, 중요한 사회 의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겠지요. 사회의 중요이제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일보를 포함한 신문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신문의 여론 주도 역할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광고주협회의 올해 조사는 지난해의 ‘신문의 뚜렷한 하향세, 포털과 YTN의 약진’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특히 YTN에 더욱 고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창기 동고동락한 인연으로 항상 친정으로 여기고 있는 YTN에 관한 좋은 소식에 덕담 섞인 사설(辭說)을 다는 일은 나로서는 즐겁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대외적인 ‘표정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좋은 소식일수록 객관화함으로써 자기믿음과 조직결속이 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되도록 담담하게 읽어보고, 나아가 거기에서 교훈까지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광고주협회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크기와 과학적인 조사절차를 감안할 때 매우 신뢰할 만하다. 올해 조사에서 YTN은 전체 언론매체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서 5위를 차지했다. 순위를 보면 KBS, MBC, 네이버, SBS, YTN, 다음, 조선일보, 중앙

일보, 매일경제, 네이트, 동아일보, 한겨레 순이다. 전체 응답자 1만명 가운데 3백명이 YTN을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꼽았으므로,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균 시청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성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꼽으라는 설문에도 YTN은 7위를 차지했다. [KBS, MBC, 네이버, SBS, 조선일보, 다음, YTN, 중앙일보, 네이트, 동아일보 순]. 아마도 이번 조사에서 YTN의 약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은 뉴스정보 이용매체 순위에서 일 것이다. 보도, 기사, 뉴스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응답자들은 KBS, MBC, 네이버, SBS, YTN, 조선일보, 다음 순으로 꼽았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여론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에서 YTN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40대 가운데 8.5%가 뉴스정보는 YTN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해, SBS의 7.5%, 네이버의 4.7%를 앞서고 있다. 50대는 6.9%가 YTN을 주요이용 뉴스매체로 꼽아 SBS의 7.5%보다 약간 뒤지지만, 네이버의 1.7%를 압도하고 있다. TV채널의 하루 시청 시간 비교에서도 YTN은 49.5분을 기록해 지상파와 거의 경쟁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이제 뉴스정보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상파 방송’, ‘YTN’, ‘포털’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YTN은 뉴스매체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사람들의 뇌세포속에 각인시켜 놓은 셈이다. YTN 가족들의 꽤 오랜세월의 애환과 우여곡절, 눈물겨운 노력들이 인화지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곧 종편채널과 뉴스채널이 경쟁자로 나설 터인데, YTN 뉴스는 다소 답답한 도식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 한편 걱정된다. 그동안의 YTN 식구들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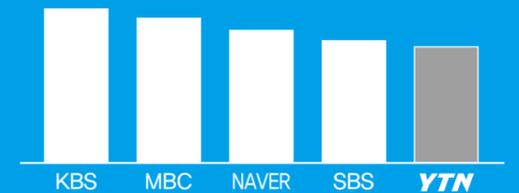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Power Media Bios 5

5천만 시청자가 인증한 YTN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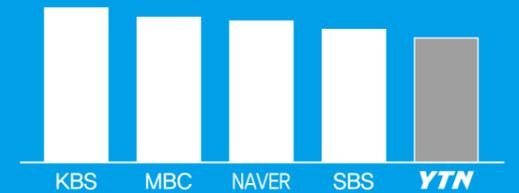
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 5위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하며, 신문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별 개인 시청률 4위 지상파 다음으로 높은 시청률을 보여, 케이블을 대표하는 채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 5위 뉴스의 생명인 신뢰성에서 신문을 앞질렀습니다.



미디어의 새로운 강자!

YTN이 케이블 채널 가운데 영향력과 신뢰도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상파와 신문,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신뢰도 5위, 영향력은 7위를 기록했다. YTN은 특히 뉴스를 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사에서 5위를 차지해 모든 신문보다 앞섰다. TV채널의 하루 시청 시간 비교에서 YTN은 49.5분을 기록해 지상파와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성인 남녀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95%이며 표본오차는 ±1.0%이다.





FOX뉴스 본사가 있는 뉴욕 뉴스코퍼레이션 건물 앞에서. 왼쪽부터 이재운 뉴욕지국장, 배석규 사장, 이상욱 뉴욕지국 촬영팀장, 류희림 경영기획실장



존 스타크 FOX뉴스 부사장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글로벌 뉴스 채널 YTN 위상 재확인!!!

FOX뉴스 등 콘텐츠 교류 확대방안 논의

배석규 YTN 사장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 7일 동안, 신설 LA지국을 비롯해 뉴욕지국과 워싱턴지국을 순시했다. 이 기간 중 미주지역 한인 동포 방송사와 미국의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인 FOX뉴스, 그리고 미국 최대 MSO인 컴캐스트 현지 제작소 등을 둘러 상호 업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래 글은 배석규 사장을 수행한 나은수 사업 2팀장의 현지 출장기다.

글로벌 뉴스 채널로서의 YTN의 위상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가면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넘게 날아와서 도착한 이역 만 리 타국 땅에서 한국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YTN을 볼 때 그 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새삼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CNN을 통해 전 세계뉴스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된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YTN을 보는 것도 아주 당연한 것처럼 된 지 오래기 때문이다. 이제 YTN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마치 공기처럼 중요한 존재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YTN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배석규 사장을 수행해 미국 현지를 방문하면서 글로벌 뉴스채널로서의 한층 더 높아진 YTN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당초 지난봄부터 미국 현지 동포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YTN과의 제휴를 바라고 있는 미국 내 주요 방송사들이 YTN 사장의 방문을 꾸준히 요청해 왔었다. 그러나 사장의 바쁜 회사업무 때문에 번번이 방문 일정이 잡히지 않다가 이번에 겨우 6일 정도의 일정이 난 것이었다.

사장께서 현지 방문 일정을 잡을 때 지시한 것이 3가지가 있었다. ‘첫째,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라. 둘째, 실무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라.’ 사실 6일 동안 미국의 서부와 동부의 주요 도시 3군데를 순시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서 당초 하루나 이틀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보고를 드렸지만 회사 업무 관련 일정상 6일 이상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맞춰 짤 수밖에 없었다.

현지 방문 일정 역시 아침 조찬에서부터 저녁 만찬까지 빈틈없이 방문과 미팅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었다. 때로는 숙소에서 컵라면으로, 공항에서 햄버거로 식사를 때우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 방문지별로 주요 일정을 정리해 본다.

LA 방문

사우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LA지국은 지난 2월 개설된 신설 지국이다. 그동안 LA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단일 지역으로 가장 많은 50여만 명의 우리 동포가 사는 곳이어서 지국 개설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경비 문제 등으로 지국 개설이 여의치 않다가 배석규 사장께서 현지 동포 방송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국 사무실 비용과 카메라 스태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일사천리로 최단시간에 개설된 곳이다.

방문 첫날 현지 방송사와 통신사 특파원들의 요청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낮익은 얼굴들도 볼 수 있었다. YTN출신인 SBS의 김도식 특파원도 있었고, 하성욱 기자와 유강훈 기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현지 KBS특파원은 YTN지국 개설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은근히 이광엽 특파원의 부지런함을 자랑해 주었다. 지국 사무실이 있는 동포방송사 TVK는 미국 최대 MSO인 컴캐스트를 통해 1천 6백만 가구의 시청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한인 동포방송사로 알려져 있다. TVK에서 제작한 뉴스는 LA뿐만 아니라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전역에 케이블 방송망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TVK는 YTN뉴스를 하루에 7~8시간씩 시간차를 두고 녹화로 방송을 하고 있다. LA지국은 TVK의 각종 방송장비와 화면을 쓸 수 있어 뉴스 제작에 큰 덕을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TVK의 제2대주주가 컴캐스트여서 TVK를 통해 컴캐스트 플랫폼에 YTN을 론칭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TVK측과 의견을 모았다. 또 라디오 코리아를 방문해 미국 위성방송인 디렉TV와의 재계약문제도 매듭지었다.

현지에서 만난 김재수 LA 총영사는 YTN의 LA지국



FOX뉴스 본사 방문



YTN 워싱턴지국 방문



라디오 코리아



YTN LA지국



Comcast 제작현장 방문



한덕수 주미대사와 조찬

개설로 LA 한인동포들의 소식 등이 YTN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오는 2012년부터 재의 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갈수록 YTN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컴캐스트 제작 스튜디오 방문을 통해서 좁은 공간을 최대한 살려 제작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 방송 제작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LA에 진출한 방송영상 관련 한국 업체들 가운데 독특하게 미국 현지인들을 상대로 합작 영화제작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CJ 엔터테인먼트 박용길 사장은 이제 우리 방송 영상기업들도 한국 동포들을 상대로 한 시장에서 벗어나 미국 주류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야심찬 포부를 펼치기도 했다.

뉴욕 방문

뉴욕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CNN과 함께 미국 내 24시간 뉴스 전문채널로 이름 높은 FOX뉴스 방문이었다. 뉴욕 맨허탄 시내에 위치한 FOX뉴스는 지난 1996년 개국 이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발 주자인 CNN을 빠른 시간에 따라 잡아 현재는 부동의 미국 내 뉴스 전문채널 시청률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채널이다. 친공화당 색채를 노골적

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핫 이슈의 선점과 현란한 CG와 요란한 배경음악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제작 기법으로 다른 보수적 색채의 뉴스채널들을 따돌리고 독주하고 있다고 한다.

FOX뉴스의 존 스타크 뉴스 담당 부사장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 YTN과의 콘텐츠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임박한 G20정상회의와 북한 문제 등은 자신들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YTN과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마이클 사피로 수석국장의 안내로 생방송 뉴스현장을 둘러보면서 뉴스 스태프들이 실시간으로 일하고 있는 뉴스센터 곳곳에 생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해 배경으로 활용하면서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뉴욕에서 만난 박인국 유엔대사와 김영목 뉴욕총영사는 한국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YTN 덕분에 한국과의 거리감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미주지역에서의 YTN의 영향력은 지상파를 능가한다며 YT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공관장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만난 우리 동포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뉴스를 잘 만들어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

워싱턴 방문

미국의 행정수도가 위치한 워싱턴은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 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굵직굵직한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의 산실이다. 사실 지금까지 워싱턴지국에 특파원들이 계속 근무해왔지만 경비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 그 위상이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유석현 특파원이 부임하면서 그동안 역대 워싱턴 특파원들의 염원이었던 워싱턴 시내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됐다.

백악관 바로 옆에 위치한 내셔널 프레스 빌딩은 한국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등 전 세계 우수 언론사의 특파원 사무실이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 공무원 사무실이 있어 여러 가지 취재 편의를 봐주고 있는 곳이다. 회사 형편이 그만큼 좋아지면서 우리 지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회사의 힘이 바깥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의 취재역량과도 직결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워싱턴에서 조찬을 함께 한 한덕수 주미한국대사는 대사관저에서, 사무실에서 YTN을 보면서 한국의 국력이 대단하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YTN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YTN이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한국 내 소식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국제 뉴스를

대폭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뉴스채널로서의 위상을 다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6박 7일간의 일정에 미국 동부와 서부를 한 바퀴 돌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쁜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 보람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주 곳곳에서 YTN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 FOX뉴스와 컴캐스트 등 미국 유수의 방송사들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향후 YTN이 글로벌 뉴스 채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다른 경쟁 방송사들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더 나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미주 지국 특파원들, 또 도쿄와 베이징, 런던 특파원 등 전 세계 6개 지국 특파원들 모두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나은수
미디어사업국 사업2팀장



YTN 웨더가 신속한 정보와 재미로 여러분의 바람막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둥둥~~ 2010년 10월 20일 대한민국 최초로 기상캐스터들이 만드는 버라이어티한 날씨 홈페이지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 언제?** 단풍이 곱던 10월 20일!!
- 어디서?** www.ytnweather.com/
www.ytnweather.co.kr!!
- 누가?** 재주덩어리 YTN 기상캐스터들이
- 무엇을?** 날씨에 관한 모~오~든 정보를
(날씨, 건강, 코디, 레저, 여행, 교통 등등)
- 어떻게?** 재미있게, 알차게, 쉽게, 유익하게 제공합니다.
- 왜~~?** YTN을 사랑하고 날씨정보에 목마른 네티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클릭클릭!!! 6명의 기상캐스터들이 각자의 독특한 색깔로 날씨방을 꾸밈니다.

기상팀의 기둥 정혜운캐스터의 날씨와 건강!
“날씨와 가장 밀접한 것은 건강아니겠어요? 날씨를 알아보면 건강 잃기 쉽습니다. 날씨정보는 물론 건강정보

까지 세심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또 주제별로 다양한 건강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늘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는 한수정 캐스터의 날씨 코디!

“요즘 아침마다 옷입기 힘드시죠? 일교차가 큰데다가 찬바람까지 가끔 심술부리고, 멋부리다가 감기 걸리면 큰일입니다. 날씨방에 찾아오시면 그날의 코디는 물론 다음 날 코디까지 미리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개인 코디입니다.^^”

결혼과 함께 말빨의 영역을 주부층까지 확대한 옥자영 캐스터, 노란 병아리 트위터 조현선 캐스터가 꾸미는 기상센터 옛보기!

“기상팀이 노래방에서 얼마나 압권인지 아세요? 저희들 변신 전·후 보셨나요? 오늘 기상장비가 또 죽었어요, 흑흑, 참 오늘 누구 생일인데 케익 정말 예뻐요~~~ 바쁘게 돌아가는 기상센터의 하루하루를 엿볼수(?)있답니다. 네? 기상팀으로 들어오고 싶으시다고요? 언제든 환영입니다당~.”

조용하게..늘 먹고있는 얌전한 식신 이혜민 캐스터의 날씨 에세이!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ㅎㅎ 저 열심히 일하려고 먹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먹거리도 챙겨 드릴게요. 날씨 에세이가 여러분 생활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은 편지로, 어느 날은 일기로, 어떤 날은 한편의 시로~~ 편안한 마음의 쉼터로 놀러오세요.”

요즘 스마트폰 따라잡기로 투잡(?)인 오수진 캐스터의 날씨와 사진!

“맑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유와지죠? 이제는 날씨방에서 이렇게 생활의 여유를 드리려구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담백한 사진들을 차곡차곡 올립니다. 참 여러분이 찍은 사진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남는 것은 사진뿐인 거 아시죠? ㅎㅎ 여러분의 솜씨 기다립니다.”

기상청은 물론 민간예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유용한 날씨정보를 엑기스만 뽑아서 한곳에! 일주일 예보는 물론 한달, 일년 언제든 원하는 날의 날씨를 제공하는

날씨달력! 목소리 큰 진두오빠의 진두지휘아래 여전히 톡톡 튀는 지현언니가 일곱 빛깔 제주꾼들과 함께 무지개 정보를 만들어갑니다.

이밖에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수, 각종 레저, 스포츠, 교통에 날씨를 접목한 최신 나들이정보! 시청자와 네티즌들이 함께 공유해 만들어가는 날씨 참여방까지... 날씨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엄청난 플러스 알파!! 기상팀이 YTN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폭설과 한파가 우려되는 올겨울.. YTN 웨더가 신속한 정보와 재미로 여러분의 바람막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클릭클릭! 하루 조회수 10만건이 넘는 날 기상팀이 기분 좋게 쏘겠습니다!

김지현 차장대우 문화과학부



왼쪽부터 이혜민, 정혜운, 한수정, 옥자영, 조현선, 오수진 기상캐스터

국민 여러분! 날씨 보물 곳간 YTN웨더를 터세요!!!

‘날씨는 영원한 뉴스다’는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극단적인 현상은 날씨 소식을 뉴스의 헤드라인에 자주 올리기도 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날씨는 첫 대화 주제가 된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라거나 “날씨가 추워졌네요.”라고 말을 건넨다. 또한 ‘때는 안개가 자욱 낀 어느 새벽’,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늦은 밤’으로 글머리를 시작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로 시작하는 노래도 있다.

날씨 따라 울고 웃는 일도 많다. 귀에 익은 이야기로 나막신장수와 짚신장수의 아들을 둔 노모의 날씨 걱정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하늘을 원망하는 농부 사연도 있고 폭우로 큰 손해를 본 개인사업자의 사연도 많지만 날씨 덕택에 평생 고민을 해결해 활짝 웃게 된 사연도 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어느 남성 이야기. 그는 1980년 겨울, 결혼을 하였다. 하지만 그 결혼은 당시 양가 부모의 반대가 심해 가까운 친구만 초대하여 어느 절에서 조촐한 식을 올리고 사진만 한 장 남겼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신혼살림이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보니 결혼기념일은 까맣게 잊고 살았다. 애를 낳고서야 대중 날짜를 추정해 혼인 신고를 했다.

결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시절이었다. 세월이 흘러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이를 기념하고 싶었다. 그런데 결혼한 날짜가 언제인지 어디에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친구에게 물어도 정확한 날짜가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날씨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절에 찾아가던 때가 1980년 겨울인 1월 하순에서 2월 상순쯤. 하루 전날 기온은 겨울임에도 매우 포근했고 비가 내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결혼 당일에는 기온이 푹 떨어졌고 아침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하루 종일 눈발이 날렸다. 낮에도 몹시 추워 고생했던 날씨가 떠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상청에 도움을 청했다. 날씨자료를

뒤져보니 그 해 1월 29일 광주 최고기온이 영상 8.2℃, 하루 종일 10.5mm의 비가 내렸다. 다음날인 30일 새벽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비는 눈으로 변했다. 통상 아침에 나타나는 최저기온이 그 날은 오후 6시경에 나타나 -7.6℃를 기록했다.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21.2 m, 눈은 0.3 cm 쌓였다. 그날 이후 2월 상순까지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지며 눈이 연일 계속 내렸다. 이 분이 찾는 날이 1월 30일임을 알아냈다. 그 날의 날씨자료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뉴스라 말하는 날씨 정보는 생생한 당시 역사 기록일 것이다.

10월 20일 ‘YTN 웨더’라는 날씨 포털 사이트가 탄생하던 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그 새로움에 놀랐다. 항상 날씨 정보를 다루는 기상청 사람으로서 놀람보다는 질투심이었을 것이다. YTN이 날씨 보물 곳간을 만든 것이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날씨 정보를 원하는 국민들의 입맛에 딱 맞게 날씨 관련 모든 정보를 잘 정리해 놓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차려 놓았다. 때를 놓치면 볼 수 없는 방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날씨 전문 사이트임에 틀림없다. 이는 아부가 아니라 감사다. 기상정보 전달 수단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이다.

기상청이라는 딱딱한 관 주도의 사이트만 보다가 본 ‘YTN 웨더’는 새로 오픈한 멋진 백화점 같은 인상이다. 상품이 잘 진열된 고급스러운 백화점의 쾌적함은 누구나 알 것이다. 기상청으로부터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할말은 하고 싶다. ‘YTN 웨더’는 이용자가 편리한 날씨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날씨 고급 백화점임을 인정한다. 날씨가 인류의 최대 관심사가 된 상황에 아주 적절한 아이টে임을 포착한 YTN의 혜안에 찬사를 보낸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뜻처럼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함이 틀림없다.

김승배 기상청 대변인



신입 기상캐스터 인사드려요!!!

신입 기상캐스터의 미래는 맑음!

처음 내 직장은 일본의 기상회사! 내가 간절히 원하던 기상 캐스터로 일할 수 있어서 타국의 생활도 그저 즐거움이었다. 일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내 자신에게 꼭 맹세한 것이 있다. 반드시 겨울 전에는 다시 기상캐스터가 되겠다는 거!

기상 캐스터가 되겠다는 나의 꿈을 이뤄줄 ‘YTN 기상 캐스터 모집’, 1차 카메라 테스트, 준비 한 건 많은 데 막상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왜 이렇게 다리가 떨리는 지 표정은 웃고 있지만 좋아하는 이미 얼음을 밟고 있는 듯 흔들렸다. 실력 있고 예쁘고 당찬 모든 후보자들 사이에서 내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날 전화가 왔다. 02-3XXX... 받아마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감/사/합/니/다! 전화 해준 분이 얼마나 놀랐을까, 아직 최종 합격한 것도 아닌데...

최종 면접날, 사장님과의 티타임이 먼저 시작됐다. 조금 낯설었지만 면접을 보는 후보자들에게 대한 세심한 배려에서 나온 것 같아 따뜻한 차만큼이나 긴장한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 이후 이어진 최종 면접에선 4명의 심사위원 분들의 질문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 또 집중했다. 그러다보니 너무 ‘의욕만 앞선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로 면접을 마쳤다.

“합격하셨습니다.” 저녁에 바로 연락이 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나를 믿고 지지해주신 부모님, 끊임없이 응원해주던 친구들, 나도 이제 웃을 수 있다. ㅎㅎㅎ ^-----^

내 생애도 봄이 왔다. 나 이제 겨울은 안녕 할래! 내 미래는 이제 맑음이다! 부족하고 또 모자라서 혼나기도 하겠고, 가끔은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맑은 날씨를 가득 준 YTN에서 마음이 따뜻한 또 성실한 기상캐스터로 일해 나아갈 거다! 미래가 맑은 기상캐스터로 파이팅 할게요!

이슬기 신입기상캐스터



김수정 (82.4.13) 경희대 관광대학원



한경진 (84.12.14)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정선영 (85.6.20) 단국대 연극영화과



이슬기 (86.9.13)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기상캐스터의 ‘앗 나의 실수’

“대따 더운 날 씁니다”

기상 캐스터 8년차!!! 어느새? 벌써? 여러 선배들의 이런 반응이 그럴 만도 하다. 8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매일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로 조용한 날이 없기 때문이다.



남대문 YTN 타워로 옮긴 지 얼마 안 돼, 뉴스현장의 날씨 스퀴즈 차례가 왔다. 정찬배 선배의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운캐스터?”란 멘트가 끝나고 “네, 기상센터입니다” 하는 순간 마치 예정돼 있었던 듯.. 내 머리 위에서 “뽕” 소리와 함께 스튜디오에는 까만 연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내 자리 옆으로 깨진 유리조각이 푹푹 떨어졌다. 하지만, 생방송 중이라 표정하나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잔뜩 긴장한 얼굴에 가까스로 웃는 표정을 지으며 끝까지 방송을 끝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기에 —^^* 방송이 끝난 뒤 알게 된 건 하필 그 많은 조명중에 내 머리 위의 조명만 꺼져버렸던 사고, 흑 ㅜㅜ 이럴 수가.

방송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무더웠던 여름날, 정말 덥다는 걸 더 실감나게 설명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이후 이어지는 나의 애드립 멘트... ‘오늘 대부분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31도, 강릉 32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른 상텐데요.’ (잠시 머릿속으로 어떤 표현을 해야하나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 한마디) “대따!!) 더운 날 씁니다.” 순간 난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스스로 자책했다. 날 잡고 있던 카메라 후배의 웃음보가 터졌고 방송 뒤 친한 기자 선배의 문자 “혜운아... 그렇게 덥다? ㅎㅎㅎ 대따 더웠어? ㅎㅎㅎ”. 아~ 참피해 ㅜㅜ

또 화려한 실수담을 마무리 하는 사건은 따로 있다! 작년 야심차게 준비했던 날씨 포맷을 소화 하던 중에 생긴 일이다. 좀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날씨를 전달하고자 카메라 워킹과 더불어 캐스터가 같이 앉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거며 날씨를 전달하는 콘셉트이었다. ~

그날도 앉뒤, 오른쪽, 왼쪽 옮겨가며 그래픽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태풍을 설명하던 중 그래픽을 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스텝에 맞춰 내 몸이 뒤로 돌아버린 것이다! ㅜㅜ 마치 춤을 추다 돌듯이 ㅜㅜ. 순식간에 내 몸은 카메라를 등지고, 파란 크로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 모니터를 보니 내가 딱하니 뒤돌아서 있었던 것. 순간 너무 놀라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앞을 바라보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설명을 해나갔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다. 방송을 끝낸 뒤 모니터 자료를 다시 보고 너무 많이 웃어주셨던 진두 선배와 기술감독님 “야 돌발에 이거 내야겠는데...” “ 혜운아 너 요즘 지루 박배우러 다니는 거 아니니?” 잘못된 건데, 웃음으로 지나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었다.

말도 탈로 많았지만, 난 항상 에너지 넘치고,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이 그래서 더 좋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이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한게 느껴진다.

정혜운 문화과학부

사랑하는 박종권 선배께

선배! 박 선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조사입니다. 제가 지금 선배를 추억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겨지지 않아요. 금방이라도 저 뒤에서 “문석아,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손에 ‘V’자를 그리고 나타날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선배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대전지국에 온 첫 날 기억나세요? 작고 까만 얼굴에 큰 웃음을 짓고 그러셨어요. “난 박종권이야. 앞으로 잘해보자.” 그리고 나서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같이 취재가면 “취재기자가 마이크 가방 들고 다니면 모양새 안 나온다”고 틈만 나면 가방을 당신이 빼앗아 들었고. 한밤중에, 새벽에 사건·사고가 생기면 아무리 고단해도 싫은 내색 한 번 안내고, 이가 아파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도 취재가 지연될까봐 약국에도 안 들리시는, 선배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 일보다 회사 일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선배를 의지하고 존경했는지. 저한테 선배는 아버지 같은, 형같은, 친구 같은 분이셨어요. 선배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부자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배와 형수님이 해주셨던 김치. 몸 잘 챙겨야 한다며 건네셨던 배즙. 무엇보다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해주셨던 진심어린 위로. 선배! 지금이 선배의 그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제 등 좀 토닥겨주세요.

선배는 지금도 가족과 우리 지국 사람들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술 먹으면서 형수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선배 눈가는 항상 젖어있었어요. 아들, 딸 얘기 하실 때는 뭐가 그리 미안하신지 얼굴에 애뜻함이 묻어났어요. 그치만 선배!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는 최고의 남편이었고, 최고의 아빠셨어요. 형수님도 아실 거고 지윤이, 초롱이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큰 걱정 하지 마세요. 미안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해요. 선배의 고민을 들어주지 못해서, 좀 더 얘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선배와 좀 더 술 한 잔 자주하지 못해서, 선배와 좀 더 담배 자주 피지 못해서, 선배와 좀 더 이런저런 얘기 자주하지 못해서. 그리고 형수님하고 같이 저녁 한 번 먹자고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배! 선배랑 같이 노래방 가면 꼭 부르셨던 노래 있죠? 천년바위.

“서산 저 넘어 해가 기울면 접으리라 날개를
내가 숨 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려.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 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바위 되리라.”

이제 이 노래 누구랑 부르죠? 한 손으로 마이크 잡고 눈은 지그시 감고 이 노래를 가슴으로 부르던 모습.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립습니다. 벌써 그립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픈 거 싫어하실 테니까 너무 많이 울지는 않을게요. 대신 선배! 선배가 부르시던 노래가사처럼 항상 지켜봐주세요. 가족들이 곳곳하게 건디는 모습을. 지윤이랑 초롱이가 어엿한 어른이 돼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형수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선배가 아끼고 보듬었던 후배가 훌륭한 기자로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봐주세요.

매 순간 기억하겠습니다.
선배의 그 따뜻한 마음과
환하게 웃는 얼굴을.

선배와 함께해서 다행스럽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 선배를 가장 존경하는 후배, 문석이가.

이문석 대전지국



대전지국 고 박종권 차장은...

추석이던 지난 9월 22일 취재기자, 카메라기자과 함께 '귀경길 정체' 리포트 제작을 하던 중에 고속도로 촬영을 하던 카메라기자를 위해 안전 수신호를 보내다가 통제를 잃고 진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순직했다.

1962년 8월 24일 충남 금산에서 태어난 고 박종권 차장은 대전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994년 3월 연합통신 대전지사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YTN과 인연을 맺었다. 1995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파견근로자로 YTN대전지국에서 근무했고 2000년 8월 1일 경력직으로 YTN대전지국에 전문직사원으로 입사한 뒤 2007년 6월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돼 순직할 때까지 운전과 촬영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불규칙한 지국 근무 여건에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2002년 3월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2006월 2월 졸업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지희(47)씨, 아들 지윤(23)군, 딸 초롱(21)양이 있다. 회사는 박종권 사우의 공로를 인정해 차장으로 특별승진 조치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갈지자 주행' 해군 최신에 고속함 문제 단독보도

진실규명과 군사기밀 사이에서

처음 국방부에 출입하게 된 것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함체 인양을 위해 온 나라의 관심이 군에 집중됐던 지난 4월이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보도 그랬지만 평소 국방 분야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라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맡게 된 국방부 취재 업무는 한층 부담스러웠다. 더욱이 유난히 폐쇄적인 군 특성 때문인지 신참 출입기자가 조직 내부의 정보를 취재하기는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특히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2주간은 매일 매일 쏟아지는 타사의 예측 보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 "이러다가 평생 물먹을 것을 한꺼번에 다 먹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비록 그 같은 타 매체의 보도 중 상당량이 오보였던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지만 당시는 '낙중은 특종의 어머니'라며 스스로 되지도 않는 위안을 하면서 몇 달 안에 타사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단독 기사를 반드시 써내리라고 속으로 거듭 다짐했다.

기회는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9월이 되고 육군 K 계열 무기에 대한 각종 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기 시작할 즈음 마침 평소 알던 취재원 한 분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다. "국방 선진국을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국산 무기개발 성공률이 50%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90%를 넘어 100% 가까이 된다.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NLL 최전방을 수호하는 차기 고속함을 만드는 사업, 일명 검독수리-A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곧 취재를 시작했고 얼마안가 그간 쌓였던 문제점들이 조금씩 감지됐다.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고속함의 동력계통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실질 배치된 1번함인 운영하함의 진동 문제가 여전한데다 국산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기 시작한 2번함 한상국함부터는 문제가 더욱 커져 정상적인 고속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의원실을 통해 국감자료로 요청해 입수한 방위사업청 자료의 시험평가 결과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결함으로 배가 좌우로 꺾도를 이탈한다는 것. '갈지자 주행' 고속함이란 함축적인 제목을 달아 일주일간 모두 6개의 리포트를 제작해 방송했다.

첫날 YTN에서 아침 뉴스부터 보도가 나가자 방위사업청 담당자는 브리핑을 통해 한상국함과 후속함들의 직진 주행성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인했다. 연합통신과 지상파 방송, 각 신문과 인터넷 매체는 YTN 기사 내용을 받아 해군 고속함의 직진 주행 문제점을 그대로 보도했다. '갈지자' 고속함이란 표현은 부실한 군함 건조과정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말처럼 인용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고속함 문제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됐다.

사실 뉴스가 처음 보도된 날은 문제가 된 한상국함이 조선사로부터 해군에 인도되기로 예정됐던 날이었다. 보도가 나간 뒤 군 당국은 선박 인수를 보류하고 워터제트 추진기의 재설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정황도 파악됐다. 조선사가 선박 인도를 강행하려한 사실과 방위사업청이 한상국함의 문제를 확인하기도 전에 후속함 건조를 줄줄이

계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다보니 '갈지자' 주행 문제는 당연히 후속함들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다.

뉴스가 나간 뒤엔 군 안팎에서도 "속 시원한 뉴스"였다는 다소 의외의 반응이 들려왔다. 군함 건조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군 조직의 속성상 말 한번 제대로 못하고 속만 끓여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뭔가 해냈구나' 하는 보람도 느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군 조직의 과도한 비밀주의는 심층 취재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실 규명과 군사기밀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국방부 출입기자의 숙명이라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기밀사항도 많았다. 고속함의 시험평가일지처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라도 공개해야 할 사항도 당국은 대외비로 묶어놓고 있다. 사업 하나에 수조 원씩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방위사업들인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도 막중한 것 같다.

보도가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 제보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복수의 취재원이 든든한 지원을 해주었다. 옆에서 항상 격려해준 선후배 기자 동료의 힘도 컸다. 결국 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 큰 영예까지 안게 됐다.

'갈지자 고속함' 보도가 수차례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차기고속함 이름의 주인공인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명예에 누가 된 건 아닌지 마음 한켠이 무겁기도 했다. 그래도 이런 사실 보도가 이 땅 이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무기, 우리의 군함 건조시스템이 진정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위안을 삼아본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의 그 같은 환골탈태만이 '검독수리' 차기 고속함이 명실상부한 NLL의 수호신으로 부활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함형건 차장대우 정치부





 Visiting
Berlin

베를린에서 통일을 꿈꾸며

제법 차가워진 가을 밤. 베를린 연방하원 광장에 작은 공연무대가 마련됐다.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식. 무대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속속 자리를 잡았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며 크리스티안 볼프 연방 대통령 같은 정부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자가 등장해 무대 아래 저편에 앉아 있는 참석자들을 소개한다. 대형 스크린이 비춘 헬무트 콜 전 총리. 20년 전 독일통일을 이끌어낸 헬무트 전 총리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 약속이나 한 듯 참석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낸다. 존경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부터의 박수며 찬사다. 헬무트 전 총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지난 통일의 과정과 회한이 눈가에 스쳐 지나가듯 그의 눈빛은 깊고도 벽쳤다. 20주년 기념행사는 소박했다. 국가수반의 엄숙한 연설도, 대단한 스케일의 공연도 없었다. 아카펠라 그룹이 하모니를 이어갔고 동독 출신의 젊은 가수가 몇 곡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곤 독일 국가와 함께 간단한 불꽃놀이가 이어졌을 뿐이다. 행사는 짧았지만 독일에 머문 닷새 내내 그날의 영상이 단편처럼 머릿속에 머물렀다. 수줍은 독일 청년의 노래와 콜 전 총리의 눈빛, 조용한 궁지로 가득차 보였던 독일 사람들. 1945년 당시 연합군의 용단폭격을 받아 지금도 재건이 한창인 작센주 드레스덴에서도 느껴진 것은 다름 아닌 평화였다. 동독 시절 당시 지어진 회색 시멘트 아파트와 유리로 만든 최첨단 폭스바겐 공장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었고 알트마르크 광장을 지나는 구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서는 여유가 느껴졌다. 물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지면서 아직도 진통은 계속되고 있었다. 구 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서독지역의 70% 수준이고 실업률도 2배 이상 높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차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듯했다.

부러웠다. 우리의 마음속에 북한은 너무나 먼 나라이고, 북한 주민들 역시 60년 동안의 단절로 같은 민족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로 느껴진다. 천안함 사건이후 마음의 장벽은 더욱 두터워졌고, 남북 교류 길도 쾅쾅 얼어붙어 버렸다. 대통령의 8.15 통일세 화두로 통일재원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터 통일재원 마련, 남북관계 정상화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높아만 보인다. 하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우리 손으로 이뤄내야만 하는 사명인 만큼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통일에 대한 고민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도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한걸음씩 준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독일보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는 그날의 축제에서 독일 통일 20주년보다 더 깊고 벽찬 감동을 전달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홍상희 정치부



브레멘 컨벤션센터 (독일통일 20주년 행사장)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는 어디에?

“안녕하십니까, YTN 해외방송팀 두수진 PD입니다.” “성이 ‘두’씨야?” “네.” “특이하네...” 독특한 성 때문에 이름을 말할 때면 항상 따르는 질문들.. 두 씨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나 ‘주’로 오해해 이름을 큰소리로 몇 번씩 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중국 당나라 때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두보(杜甫)의 후예이기에 나름 자부심을 품고 살고 있다. 고등학교 때 ‘두보’의 ‘강촌’을 읊으며 언젠가 중국 땅을 꼭 밟아 보리라 마음먹은 지 어언 10년, 드디어 난 중국 땅을 밟게 되었다. 그것도 우리 고구려 역사를 따라 중국 동북 지역 곳곳을 돌아보는 최고의 코스로!

첫발을 내딛게 된 라오닝 성 다렌시, 한국말을 매우 또렷하게 구사하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버스의 몸을 신고 ‘비사성’으로 향했다. 안내원은 자신을 ‘동포 4세’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일정의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 고구려가 요동 지방을 지키기 위해 세웠다는 비사성 입구에 도착한 일행 모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사성이라는 단어와 고구려라는 단어하나 볼 수 없는 ‘대흑산산성’으로 표기된 표지판이 우릴 반길 뿐이었다. 해발 660미터를 숨을 고르며 오르는 길에 안내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취재방향을 잡아나갔다. 한 시간 남짓 올랐을까,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던 비사성의 입구가 늪스럽게 버티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건물. 한 눈에 봐도 중국식 건물임을 알 수 있었던 ‘당황전’은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용 건물이었다. 건물 양쪽으로는 중국 조상이 싸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마 석상들을 세워놓았고, 곳곳에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상인들이 있었다.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으로 보이는 현지인을 붙잡아 어떻게 왔느냐고 인터뷰를 했다. 그저 등산을 온 것뿐이고, 역사적 배경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어디에도 우리 고구려 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없어 답답했다. 발걸음을 돌려 내려가려는 찰나, 주차장 너머로 비사성 성벽으로 보이는 초라한 돌담이 포착돼 카메라를 들고 담기 시작했다.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에 열심히 담고 내려왔을 때쯤, 나와 촬영 PD를 주시하던 안내원이 갑자기 돌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호의적으로 촬영에 협조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주던 안내원은 난데없이 촬영을 중단하라는 통보와 함께 찍은 테이프를 반납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취재를 시작한 지 단 5시간 만에 촬영을 중단하라니,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더러 돌아가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리고 잠시 후, 한국 여행사로부터 촬영을 중단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방송 보도용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최근 일본과의 영토분쟁으로 민감해 있기 때문에 괜히 촬영했다가는 우리나라한테 불똥을 튕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꼭 동행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아무리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중국 여행사 측과 우리나라 여행사 측은 일관된 답변으로 말을 아꼈다.

나는 이튿날부터 안내원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설득한 끝에 결국 작은 일반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것을 허락받았다. 화질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학생들이 가져온 카메라 중 가장 성능이 좋고 화질이 좋은 카메라를 골라 안내원과 곳곳마다 지키고 있는 공안의 눈을 피해 최대한 필요한 것을 담아갔다. 전쟁의 잔흔이 그대로 묻어 있는 압록강 단고, 손으로 잡힐 듯한 거리에 있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의 모습, 중국이 만리장성 동단이라 주장하고 있는 ‘호산장성’, 눈보라와 싸우며 온몸을 비닐로 감고 오른 해발 2천 미터, 1330여 개 계단 끝에서 만난 백두산 천지 등. 카메라에 담지 못한 아까운 장면들이 너무도 많았다. 닷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모두 2천여 킬로미터, 버스로 이동한 시간만 족히 36시간이 넘는다. 때문에 개발이 덜 된 동북 지역을 이동하는 구간마다 화장실이 마땅치 않아 옥수수 밭에 거름을 주는 일도 서슴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과 잘 풀리지 않은 촬영과 취재도 고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 지역씩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역사에 대해, 역사를 가꾸은 우리 선조에 대해 온몸으로 절감



두수진PD 마이크도 못 들고 스텐드업



금강대협곡에서



백두산 천지 오르기 전 계단 앞



비사성에서 한상원PD



비사성 지도 앞 안내원 설명



백두산 정상에서 한상원 PD



장군총 앞에서

광개토대양비

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특히, 이번 취재에 동행한 ‘성신여대 역사현장체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젊은이들에게도 역사적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훼손된 유적들에 불과했지만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는 가슴 속 깊이 뿌리박혔다. 과거의 산물인 역사가 현재를 증명하고 미래를 대변하는 것이기에 뺏속까지 깊이 박힌 역사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교묘한 수법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해가고, 훼손된 유적지들을 내버려두고, 그 곁에 자신들의 건물들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후손들의 심장 가득 흐르는 고구려의 정기는 없어지지 못하리라...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고구려의 정기를 교육을 통해 물려주는 것이다. 단순히 암기식 위주의 역사 수업이 아닌 선조의 훌륭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실에 대해 깨우쳐주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왜 나이 어린 안내원 하나 때문에 어떻게 취재를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동포 4세지만 철저히 중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 그 안내원의 완고한 중국의 역사적 의식 때문이었다. 과거엔 고구려가 한국 땅이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자신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유적지 하나 촬영하는 것도 당국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다부지게 말하는 안내원은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진 젊은이었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였다면 어땠을까, 역사를 과거의 사실만으로 혹은 시험문제를 위한 과목쯤으로 여기며 교육받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우리 역사의 미래는 있는 것일까. 철저히 왜곡된 부분을 사실로 믿으며 교육받고 있는 중국의 다음 세대들 앞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물론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고구려의 정기를 심는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대가 넘어갈수록 어찌면 고구려의 정기는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영원히...!

두수진 PD 해외방송팀



Journalist

환상의 제주도를 담다!

YTN이 올해로 17살이 됐다. 그리고 사이언스TV도 개국 3주년을 맞았다. 뭔가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찾고 있던 중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이 된 제주도가 내 앞에 나타났다. 기획해서 제작해보라는 선배의 한마디에 순간 "해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일었다. 지난해 9월부터 1년 뒤 방송을 생각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관한 자료를 찾았다. 기획과 자료조사만 4개월이 걸렸다. 하나씩 하나씩 제주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신감보다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타방송사의 자연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몇몇 프로듀서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그들의 경험을 듣고, 듣고 또 들었다.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기획안을 완성했다. 그런데 수중촬영이 가장 문제가 됐다. 일반적인 수중촬영이 아니고 수중 동굴 탐사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 그런 다이버가 몇 명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저런 여건으로 5부작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3부작으로 줄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제약이 따르다 보니 처음 열정이 점점 식어갔다. 그 열정이 다시 끓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창사 17주년 특별기획 "영상보고 화산섬 제주" 3부작은 그렇게 시작됐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창사 특집 화산섬 제주 CP를 맡으면서 또 다른 특집 <우리 돼지 맛 이야기>를 제작하고 있었다. 지난 8월, 서귀포 삼형제 섬이라고 불리는 범섬, 쇠섬, 문섬을 찾았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나를 맞이한 건 폭폭 찌는 여름 날씨였다. 어쨌든 차를 타고 제작팀이 있는 서귀포로 갔다. 미리 내려와 촬영을 하고 있는 제작팀 스태프들이 있는 곳은 범섬, 너무도 가까이 선명하게 보이는 섬이 손에 잡힐 듯 했다. 착시효과(?)였나? 배는 한참을 섬을 향해 달렸다. 보기보다 섬은 땅에서 멀리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도 묵묵히 서귀포 시내를 바라보며 있겠지). 섬에 도착해 제작팀이 있는 곳에 전화했더니 산 위에 있다는 것이다.

섬에 산이 있다고? 작게만 보였던 범섬은 결코 작지 않은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섬이었다. 산으로 가기 위한 길은 유일하게 절벽에 매달린 밧줄 하나가 전부였다. 험~ 한숨부터 나온다. 어찌됐든 절벽을 타고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는 길을 뚫고 30분 쯤 올라가니 제작팀이 옷통을 훌쩍 벗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젠 또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싶어 물었더니 너무 더워서 벗었다는 것이다. 하기가 나도 옷통을 벗고 싶었을 정도로 더웠으니 이 사람들은 오죽했겠는가. 미리 연락 받고 사 온 얼음물과 도시락을 내려놓고 "잘 돼 갑니까?" 라고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없고 열심히 식사만 한다.

섬 속의 섬, 천연보호구역인 서귀포의 범섬과 쇠섬, 문섬은 오랜 세월 파도침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절벽과 신비한 해안동굴이 많은 섬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후박나무, 흑비둘기가 서식하고 파초 일엽은 이곳에서만 자란다. 지난 10월 3일에는 제주의 9개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최초다. 2002년 생물권보호지역에 이어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이 확정되면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에서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가 3관왕을 차지했다. (대단한 일인데 너무 조용하게 넘어간 우리나라~)

제주의 바다는 비취빛이다. 그 속은 더욱 장관이다.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도 위대한 자연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특히 이번 특집에서는 국내 방송 최초로 포착한 특종이 있다. 고비와 청황문절, 장님새우의 3자 공생이다. 서로 다른 어종이 구멍을 파고 한 곳에 동거를 한다. 장님새우는 굴을 짓고 청소하고 고비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새우의 눈 역할을 하면서 공생한다. 청황문절의 역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열대바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밖에 달고기 사냥, 빨강불가사리, 돌고래떼, 불락, 문어의 일생 등 진기한 바다 속 이야기가 펼쳐진다.

창사 17주년 특별기획 "영상보고 화산섬 제주" 3부작은 물과 불이 만들어낸 성산일출봉, 원시림 꽃자왈, 용암이 만든 거문오름 그리고 동굴에 대한 가치를 잘 보여준다. 왜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 되는 지를...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집의 연출을 맡은 제3영상 김주선 PD에게 "에피소드 하나 주세요" 라고 했더니 추억을 구수하게 노래한 산문시(?)를 보냈다.

만장굴 7.4km인데 미공개구간은

빛 하나 없는 어둠이라네!

전등에 전전지가 떨어지면

어둠 속에서 전등가라도 위험천만~

전등이 없었을 때 햇불 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햇불이 꺼져 어둠 속을 헤메다가 죽었다는 소리도 들었지.

나도 동굴 속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조금 다치기도 했었네.

그리고... 새를 촬영하려니까

머리 날을 허탕~

고생 고생이라 결국은 조류전문 촬영감독에게 부탁했네.

역시 모든 건 전문가 필요한 거야~

허균 제국도 불레길 관광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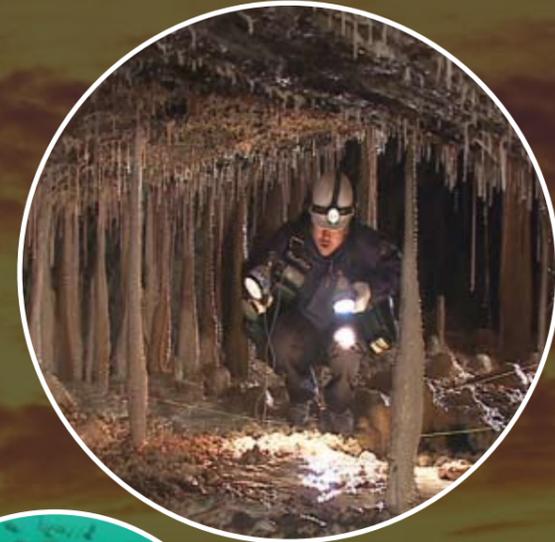
(냄비군성)

무분별한 관광으로 제국도의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될까 걱정스럽기도 했네.

^^*



김신영
차장대우 사이언스
TV본부 제작팀



라디오가 트위터를 만났을 때....

지난 9월 2일 새벽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의 위력은 대단했다. 지하철 1호선이 단전으로 멈추고 곳곳의 가로수가 뽑혀 길가를 가로 막는 한편, 아파트 유리창과 상가 건물의 간판들이 힘없이 부서졌다. 최근 이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는 태풍 곤파스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한 몫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스마트폰의 트위터를 통해 지하철 1호선 단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고, 곳곳의 도로 통제 상황과 태풍 피해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 유리창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 신문에 물자를 적서 유리창에 붙이면 깨짐이 방지된다는 정보를 올려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렇게 새로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등장한 트위터는 위기 상황 때마다 그 위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만들곤 한다. 트위터의 기원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트위터를 제일 먼저 기획한 잭 도시와 이반 윌리엄스, 비즈스톤이 공동으로 설립한 뒤, 그 해 10월 공식 출범하면서 트위터는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지난 9월 3일 대표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 가입자 수가 1억 4천 5백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가입자 수는 1억 580만 명 수준이었으나,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으로 불과 4개월 만에 트위터 가입자 수가 37%나 증가한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월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한 트위터 사용자가 62%나 증가했고, 새 가입자 가운데 16%는 휴대전화를 통해 처음 트위터를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의 열풍으로 9월 5일 시점으로 트위터 국내 이용자 수가 137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통계 사이트 오이코랩(@oikolab)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국내 이용자가 50만을 돌파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8월 100만을 넘어섰다. 한 달도 안 돼 37만 명이 새로 가입하는 추세로 보서는 당분간 트위터

열풍을 계속될 것으로 미디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위터가 처음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11월 인도 뭍바이 테러 사건 당시 현지인들이 트위터에 올린 '황 소리가 났다'는 짙막한 글이 급속도로 전 세계 트위터러들에게 리트윗 되면서 부터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이란에서 일어난 시위에서도 모든 방송과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에서 시위대가 몇 명에게 총에 맞아 사망했는지 외부에 알리는데 트위터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또,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선거운동 도구로 트위터를 활용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아이티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모든 통신망이 끊겨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최악의 상황에서 아이티 참사를 외부에 생중계 할 수 있었던 것도 트위터였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투표를 독려하는 트윗이 쏟아지더니, 유명인들과 연예인들 사이에 소위 '인증샷'이라는 것이 올라오기도 했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일반 트위터러들도 투표를 하고 난 뒤 연예인들과 같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해 스스로 대견스러워했다. 그 결과 95년 처음 실시된 지방 선거 이후 가장 높은 54.5%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방송인 김미화씨의 'KBS 블랙리스트' 논란과 DJ DOC 이하늘의 'SBS 인기가요 비난' 사건, 가수 김C씨의 'SBS 김정은의 초콜릿 비난' 논란 등 트위터로 올라 온 글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사건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 만큼 트위터가 우리 생활 깊이 자리 잡고, 뉴미디어로서 아젠다 셋팅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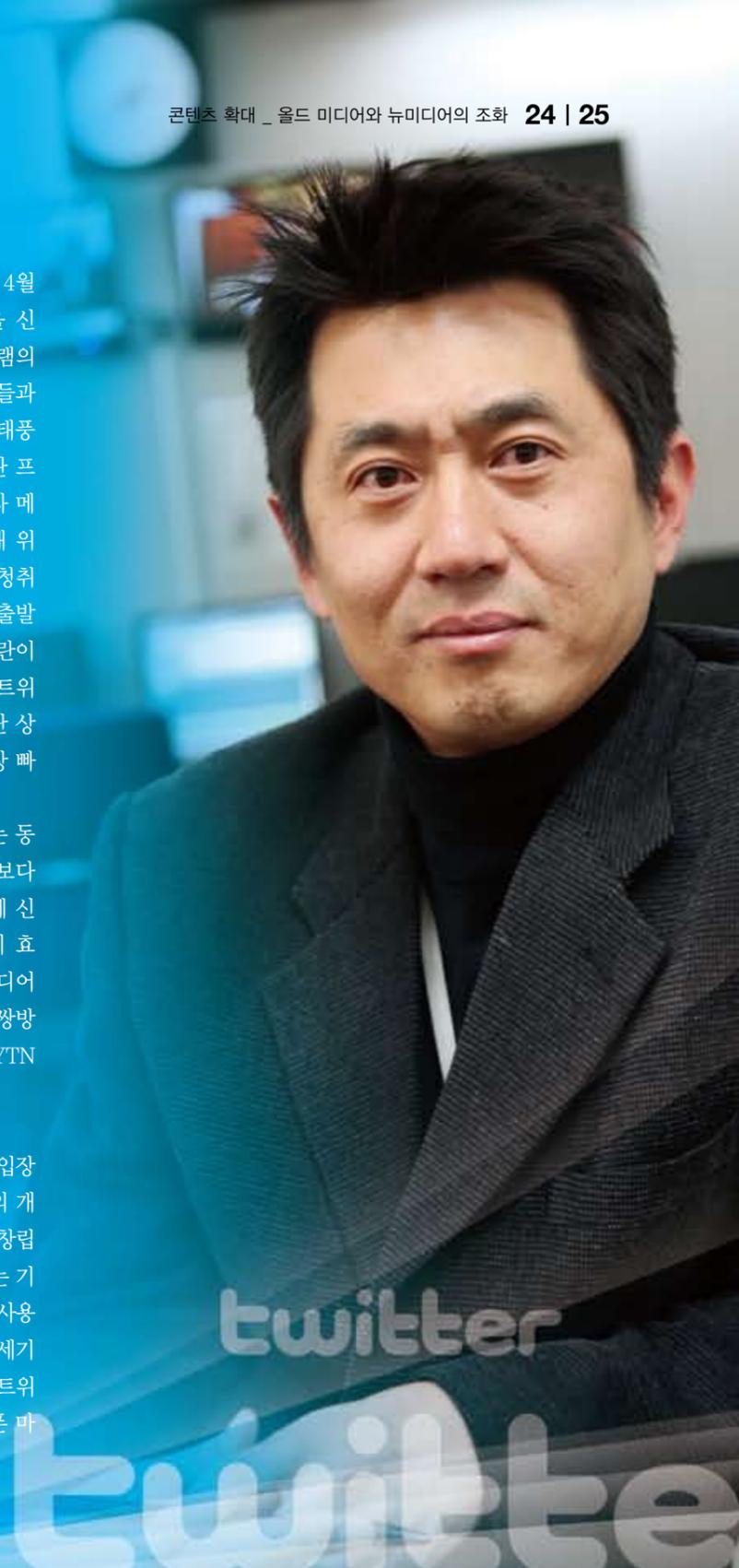
그렇다면 올드미디어 가운데 신속성과 친밀감이 가장 높은 매체로 알려진 라디오와 트위터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YTN 라디오는 그 동안 뉴미디어 전략을 담당했던

강철원 본부장이 YTN FM으로 인사 발령 난 뒤 지난 4월 봄개편을 단행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 트위터 계정을 신설했다. 그 뒤 담당PD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각 프로그램의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 수가 상당히 늘고 있고, 청취자들과 또 다른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일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도, YTN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인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담당PD 박용호)'은 문자 메시지와 트위터 계정 ytnRstart를 통해 청취자들이 현재 위치한 곳의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고, 전문가와 함께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했다. 특히,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은 수도권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출근길 교통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기상청 공식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 중단 상황과 운행 재개 상황 등을 다른 어떤 방송보다 보다 가장 빠르게 속보로 전할 수 있었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이 태풍 특보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 트위터 아이디 princepark 사용자는 "아.. 지상과보다 빠른 트윗, 실시간 재난 중계에 탄복 중. 올려진 트윗에 신뢰성만 확인되면 지상과 라디오와 연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듯" 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올드미디어인 라디오와 뉴미디어인 트위터가 융화하면서 진정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로 YTN 라디오는 진화하고 있다.

트위터의 급속한 확산을 보며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트위터 개발자들의 개방성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트위터의 폭발력은 공동 창립자들이 외부 개발자들에게 플랫폼을 완전히 개방해 원하는 기업은 누구라도 휴대전화를 제외한 기타 단말기에 트위터 사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처럼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방송 제작자도 트위터를 개발한 에반 윌리엄스와 그 공동 창립자들처럼 오픈 마인드가 필요한 것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진단을 해 본다.

박용호 YTN FM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담당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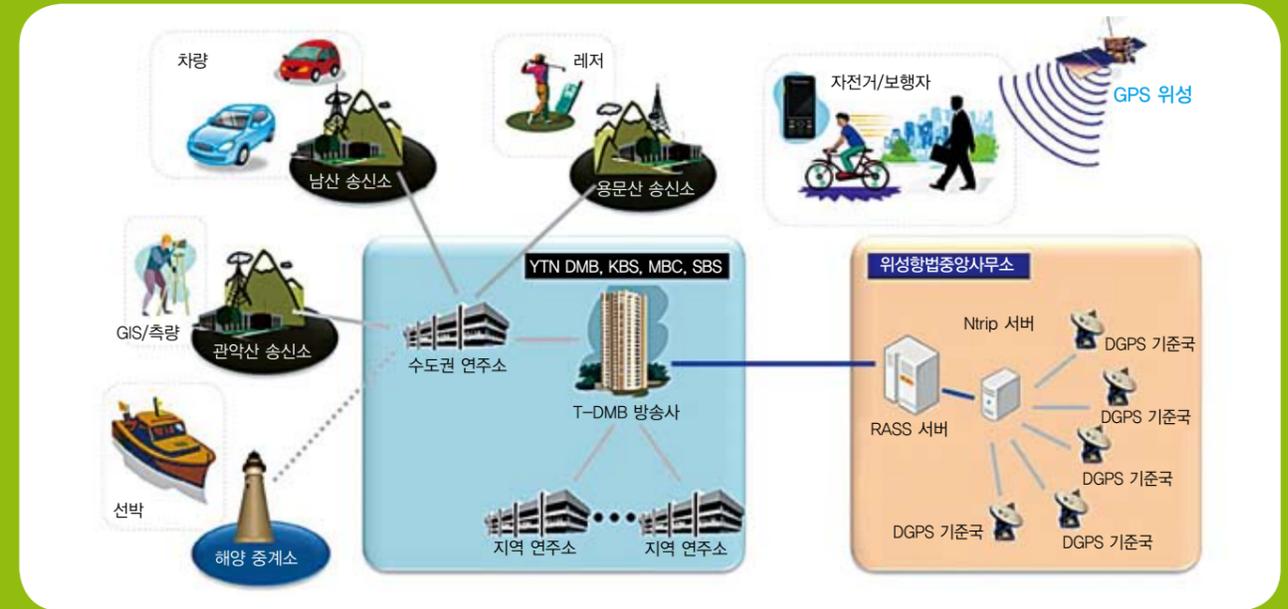
DMB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DGPS 서비스

DMB 데이터방송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지?”라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확신에 찬 목소리로 “DMB폰 뉴스 화면 아래쪽에 지나가는 문자 방송하는 거 맞지? 아는 사람이 신랑이 뭐하는 사람이나고 물어 와서 그렇게 대답했는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귀찮아 그때까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이해시킬만한 마땅한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DMB 데이터방송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DMB 데이터방송을 이용한 DGPS 서비스라는, 지금보다 더 생소한 분야의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 많아 질 것 같다.

지난 7월 29일 각종 매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지상파 DMB를 통한 위성항법 위치 정보제공 기술개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 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로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2년간 YTN DMB를 비롯하여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지상파 DMB 기반 DGPS 상용화 기술개발'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앞서 정부에서는 위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했고, DMB 방송 4사와 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이후 평가를 거쳐 위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비게이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GPS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익숙한 용어가 되었으나 DGPS라는 용어는 아직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공위성을 통해 제공되는 GPS 정보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약간(약 30미터)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DGPS는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어로서 GPS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GPS의 오차범위를 1미터급까지 줄일 수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다. 한정된 지면을 통해 DGPS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부터 DMB와 DGPS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YTN DMB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 기술하려 한다.

위에서 언급한 '지상파 DMB 기반 DGPS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2년간 약 16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지원 R&D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예산 중 4개 방송사가 사용하는 예산은 약 10억 원이며 특히 YTN DMB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그 역할에 비례하여 4개 방송사 중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업은 큰 비용투자 없이 기술을 축적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가예산으로 생성하는 DGPS 정보를 지상파 DMB를 통해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과거 해양수산부)는 이미 1999년부터 우리나라 연안 해역 각지에 DGPS 송신국을 구축하고 중파 방송을 이용하여 D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별도의 중파 전용 수신기를 갖추어야만 DGPS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특정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누적 단말기 보급이 3,000만대에 이를 만큼 보편화된 지상파 DMB 방송을 이용할 경우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DGPS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이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대부분의 DMB 단말기들이 이미 GPS 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DGPS 정보의 활용분야는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의 교통 및 레저 활동은 물론 산림자원 관리, 농업분야, 지하매설물조사, 측지·측량 등으로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본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이용할 때 자신의 차량이 도로의 몇 번째 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정밀한 길안내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인주행이 가능해 진다면 DGPS 정보는 필수불가결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속도에서도 보이듯이 방송/통신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WiFi, Wibro, WCDMA 등으로 대표되는 무선통신 매체들과 경쟁해야하는 DMB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DMB가 과연 타 방송/통신 매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필자의 실무분야인 DMB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로 하는 대답은 'DMB가 만든은 아니지만 DMB가 아니면 하기 힘든 분야는 분명히 있고 그런 분야를 잘 찾았다면 DMB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다'는 것이다. DGPS 서비스는 DMB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DGPS 정보의 특성은 데이터량이 비교적 작고 단순하여 굳이 양방향 고속 전송매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제공되는 데이터는 수많은 단말기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지상파 DMB 만큼 기술적 또는 비용적 효율성을 가진 방송/통신 매체를 찾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2년 8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DMB 방송을 통해 DGPS 상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단말기들이 출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DGPS는 원천정보를 정부로부터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느 한 방송사의 의지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상용화를 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향후 2년간 방송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필자를 포함하여 DMB 데이터서비스팀의 구성원들은 성공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도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최형철 차세대 DMB 데이터서비스팀



열정 안에서 꽃은 반드시 핀다!

영어.

학생들에게 영어라는 단어를 던져주면 반응은 대부분이 하나로 통일 된다. "영어요? 아,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서도 신기한 점은 그런 학생들도 영어를 잘 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사실상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성공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교육 문화에 영어는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원하는 문장을 영어로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해서 도달되는 것이 아니다. 영어라는 것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인 것이다. 즉, 21세기가 요구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수단일 뿐, 언어가 학생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어 공부에 전력을 쏟아도, 결국 미국에 사는 거지도 영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미국의 걸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스탠드 불을 켜 놓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영어와 접하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님께서 다 영어에 대한 지식이 많으셨고, 따라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러나 의미 없이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그 무색의 배움의 과정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았다.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 왜 어른들은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려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단순히 "내가 영어를 좋아하나?" 라는 질문부터 던져보았다. 결과는 '그렇다' 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영어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고, 그 열정은 나에게 더 많은 정보를, 그 정보는 나에게 더 깊은 열정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배우고자 하는 흥미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은 곧 성공의 도구를 목표로 삼고 근시안적인 태도로 돌진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영어에 흥미가 있다'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yes'라는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대답이 'no'라면, 억지로 배우려 하기보다는 영어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데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나에게 있어 영어의 의미가 '열정'이었던 것처럼, 개개인이 다 영어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영어 공부에 60%라면,

나머지는 다 그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 달려 있다. 뻔한 얘기일지도 모른다.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노력해라' 이니까. 하지만 그토록 뻔한 뻔 자여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최고의 공부 방법조차도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배움이라는 것에는,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에는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력해야 하는 양이 40%라고 하지 말고, 60%로 생각을 하고 항상 120%를 끝내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YTN 전국 중학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리 Capella 팀이 우승하는 영광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다지 엄청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다. 단지 100%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120%를 기준으로 삼은 자세와, 우승 여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즐기며 했다는 것이 다이다.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영어 책을 한 달에 두 권씩 읽고, 영어 신문 기사 등을 일주일에 적어도 5번은 읽고, 자세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 또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열정을 계속 불태우는 것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Capella 팀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영어 토론이라는 분야에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박차를 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이 곳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 모두는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충족하기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진수완 대명중 2년
(Capella team captain)



중학생 영어토론회 1위팀 Capella, 왼쪽부터 한기웅, 진수완, 한예린





제 7기 해외리포터 연수교육

따스한 햇살과 함께 했던 서울에서의 7일을 그리워합니다!

“쭈뼛~ 나는 기자하면 안 되겠다. 주기자(죽이자?)... 좀 그렇잖아?”

지구본을 돌리며 오로지 세계를 돌아다니는 상상을 하며 즐거워했던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가끔 우스갯소리로 듣던 소리였다. 그때 귀에 뭐가 들어왔겠는가? 오직 돌아다니는 상상만 했는데... 뒤편 오래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돕는다 했던가? 캐나다에서 교환학생, 영국과 스페인에서의 어학연수, 급기야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대학도 조기졸업(?) 하고 코이카 봉사단으로 스리랑카로 건너가 2년간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은 2001년 런던에서 만난 스위스 알프스 청년과 결혼해 5년째 취리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외국이 체질인 나에게도 많은 고비들이 있었다.

해외에 정착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 내 체류와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즐겁게 살자고 스스로에게 열심히 최면을 걸었지만 매일 언어로 인한 오해와 스트레스, 한국의 가족들과 추슬러야 하는 감정에 향수병, 혼자만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 3년 전 그렇게 지낼 때 루체른에서 프로듀서 보조로 잠시 시작했던 방송일, 카메라를 통해 새롭게 세상을 보는 일은 엄청난 삶의 활력을 주었고, 만사에 귀를 열심히 열고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다. 그저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스위스 사회 곳곳에 재미있는 일이 어찌나 많이 일어나는지... 스위스가 좀 더 입체적으로(3D?) 보이기 시작했다. 짙은 안개로 뿌영던 스위스가 드디어 점점 개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스위스 공영방송 Sf는 일주일간 저녁 메인 뉴스의 국내소식 취재와 앵커 역할을 초등학교 4학년 한 반 아이들에게 전담시키는-아이들이 필요할 때만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주는-기발하고 엉뚱한 시도를 감행했다. 어른 중심에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와 아이들에게도 팀워크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스위스는 경칩기간에 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버스노선까지 바꾸는 나라이다. (이런 일은 시골

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아무 불평 없이 너무 당연하게 작은 생명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 또 살 권리와 죽을 권리 또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유럽에서 유일하게 자살조력단체를 허용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색다른 경험들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두 나라의 다리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껴 KBS의 지구촌 뉴스로 방송일을 시작했다. 나 혼자 바라보는 좁은 시야의 세계를 조금씩 넓힐 수 있는 기회가 현지 코디일이라고 생각했다.

코디일로 현지에서 많은 기자들을 만났지만 YTN 이강문 PD, 이동형, 강진원 기자, 이런 분들은 처음이었다.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 나도 YTN 일을 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글로벌 코리아인과 인연을 맺었고 이번 제7회 YTN 해외리포터 연수까지 초청을 받았을 때는 막연히 감사하고 기뻐다. 이 연수 프로그램이 어떨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없었고 사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반갑게 맞이해주셨음에도 호텔로비에서 처음 만난 이규일 차장님이 어찌나 어렵던지... 그리고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리포터님들과 함께 한 첫 자리가 설레면서도 어찌나 어색하던지... 그러나 우리는 금세 여러 공통분모를 형성해 나갔다. 아주 유익하고 소중한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한 주제의 강좌들은 실질적으로 알고 싶었고 필요했던 지식과 교양의 수평선을 넓혀 주었다. 그동안 얼마나 분위기 파악(?) 못하며 일을 했는지도 알게 되고...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쏟은 해외방송팀의 정성이 느껴지면서 리포터들은 모두 감동했고, 또한 나의 영상이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 제작이 되는지, 프로그램 녹화과정 또한 마

냥 신기하고 흥미로웠는데, 교육이 끝난 지 벌써 1달이 넘은 지금 우리 7기 연수 리포터들은 글로벌 코리아인에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서로의 리포트를 관심 있게 보며 용기를 주는 등 기분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9월의 그 따스한 햇살과 함께 했던 서울에서의 한 주를 아주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결과는 알찬 프로그램 그 이상으로 우리 리포터들을 큰 환영으로 반겨준 해외방송팀의 따뜻한 진심 때문이 아닐까? 강홍식 팀장님을 비롯해서 김호성 전 팀장님, 이교준, 박희천, 이규일 차장님 그리고 담당 피디님들, 한분 한분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이 시간이 갈수록 농도 짙게 느껴진다. 해외방송팀이 놓아준 큰 선물 '해방팀표 영양제 주사'가 앞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것 같다.

주봉희 글로벌코리아인 스위스 리포터



미래 YTN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류충섭 지국장, 김수동 씨(카메라 담당)

2010년 11월, YTN이 런던에서 다시 깃발을 들었습니다. 95년 런던 지사가 런던에 개설됐다 경영 위기로 인해 아쉽게 철수한 지 12년만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유럽은 대개 과거의 영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런던, 파리, 로마 등 유럽의 어느 주요 도시를 가도 만날 수 있는 고색창연한 성당과 미술관이 과거 수백 년 문화 제국의 영광을 증명해줍니다. 이렇다보니 유럽을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사는 '늙은 대륙'으로 인식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 보면 유럽은 한국에 있어 현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은 물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거쳐야 할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륙입니다.

10월 말 런던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만난 유럽은 대부분 어두운 소식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재정위기의 몸살을 앓고 있고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사회 갈등은 더 악화되고 복지 혜택은

야만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갈등을 조정할 정부의 힘은 약화되면서 사회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한 때 추앙받던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인들이 과연 슬기롭게 이를 이겨낼 수 있는지, 또 그 해법은 무엇인지 아시아에서 온 특파원의 눈에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2만 달러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은 3만 달러 4만 달러 국가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까요?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분출할 수 밖에 없는 평등의 문제와 복지수요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의 유럽이 앓고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식은 10년 20년 뒤 한국이 밟을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유럽은 또 지역 통합이라는 역사의 실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륙입니다.

1993년 12개 국가로 출범한 유럽연합은 현재 27개 가입국으로 성장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범지역 통합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통적 라이벌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 핵실험을 포함한 포괄적 국방협력에 서명하며 경제는 물론 정치와 안보 분야의 통합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과거 역사 갈등을 완전히 풀지 못한 한국의 눈으로 보면 먼 미래에나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민족 사회에 진입해 사회 통합과 주변국

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다져야 하는 한국에게 유럽 통합의 경험은 먼 훗날 소중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유럽에 뿌리를 내린 YTN은 앞으로 한국인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전달함으로써 한국이 걸어 나갈 미래에 위한 소금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럽의 베이스캠프가 될 YTN 지사 사무실은 런던 시내에서 멀지 않은 해머스미스에 마련됐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화와 사진을 전공한 30살 청년 김수동 씨가 카메라맨으로 합류해 일당백의 활약을 펼칠 예정입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지사를 새롭게 개설하다보니 아직 서툴고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과 달리 유럽의 미학을 추구하는 영국인들과 매일 보폭을 맞춰야 하는 특파원의 속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시꺼멓게 타들어가곤 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인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2~3주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돈을 들고 은행에 가도 계좌를 개설하려면 몇 주 동안 힘든 스무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또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세금도 생활의 장벽이지만 익숙해지면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걸음마를 시작한 런던 지사에 사우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heers!

류충섭 유럽지국장



제 6기 시청자 위원회 구성

시청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제6기 시청자위원회가 10월 2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시청자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 그 내용을 방송제작에 반영시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장



김기덕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추천 : 한국방송기자클럽

부위원장



박병휴
법무법인 세양 대표
추천 : 대한변호사협회

위원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실장
추천 : 한반도선진화재단



문숙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추천 : 한국YWCA연합회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추천 : 대한의사협회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추천 :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석년
광주대 신방과 교수
추천 : 한국방송학회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추천 : 대한상공회의소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추천 : 전국경제인연합회



임호균
한국광고주협회 사무총장
추천 : 한국광고주협회



장소원
서울대 국문과 교수
추천 : 서울대학교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추천 : 한국영화학회

포토 뉴스



제 17회 ITS 세계대회(10.25 ~ 29) 주관방송사



'비행 청소년 교육 및 선도사업을 위한 캠페인' 법무부MOU (9.28)



제 1회 중학생영어토론회 (10.23 ~ 24)



제 6기 시청자위원회 첫 회의 (10.26)



강갑출 YTN라디오 고문 퇴임식 (10.29)



컴캐스트 스코트 힐러 부사장 방문 (11.3)



2010 ITC Fair 참가 (11.3 ~ 5)



제 1회 방송·통신·전파 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식 (11.4)

3/4분기 포상 2010년 10월 8일

- 특종상 은상**
허성준, 전기호, 박태근 대구지국 : 김해공항 전신검색기 성범죄자가 운영 단독 보도
- 특종상 동상**
김응건, 이강진, 강진원 정치부, 이교준 해외방송팀 : 대승호 나포 단독 보도 / 이상순 사회1부 : 현대건설 산재책임 하도급업체 전가 - 고용노동부 묵인 의혹 보도
- 우수프로그램상**
임수근 제작팀, 장아영 사회1부, 이성모, 최계영 영상취재2부 : 한국전쟁 60주년 특집 5부작 <한국전쟁을 말한다>
- 공로상**
김훈기 타워운영팀 : 보안시설개선공사
지민근 마케팅3팀 : 신규광고 유치에 통한 매출증대 기여
한상규 매체협력팀 : 플랫폼 계약 실적 탁월한 성과 발휘
손영범 그래픽팀 : 선거방송 그래픽 제작

게시판

퇴사

김미연 국제부 11.15 / 신정옥 국제부 10.31 / 황성수 사이언스TV 본부장 10.14 / 심정숙 국제부 10.11 / 박진연 차장대우 사이언스 TV본부 편성기획팀 9.17 / 박종권 대전지국 9.22 / 김윤화 국제부 9.26 / 박천욱 부산지국 9.27 / 이형규 타워운영팀 9.30

특별승진

박종권 대전지국 차장(순직에 따른 특별승진) 9.23

전보

문종선 사이언스TV본부장 10.29 / 유충섭 유럽지국장(러던주재) 10.25 / 이병우 울산지국 10.18 / 강정규, 김대근, 김평정, 나연수, 안윤학, 이하린 사회1부, 홍성노 영상취재1부 10.19 / 황보선 차장 보도국(해외연수) 9.27 / 이상은 영상취재1부 10.5 / 박철원 도쿄특파원 준비 10.4